

# 尹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 찬성 외침 '최고조'

## SOCIETY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 광주비상행동 제19차 총궐기대회... 2000여명 참석 안디옥교회서 '탄핵반대 광주·전남 애국기도회'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 지난 22일 오후 5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19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5개 구정당을 비롯해 주회 측 추산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선언과 발언, 공연, 현장 인터뷰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손목에 '윤석열 파면', '김건희 구속' 등이 적힌 리본을 묶고, 응원봉과 촛불 등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5·18민주광장 분수대에 설치된 10m 길이의 줄에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띠로 가득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조영대 신부는 "말도 안 되는 내란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을 100% 확신한다"며 "명확한 내란법에 대한 파면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늦어지는 것에 역사가 무너진다"

고 토로했다.

이어 "내란법과 동조범에게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특혜를 부여하는 불법적 행태에 복장이 터진다"며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광주비상행동은 "검찰이 항고조차 포기하며 윤석열 정권의 부패를 방조하고 있다"며 "법원도 윤석열 측근들의 석방을 묵인하며 정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치주의가 사라진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광주시민



2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정취를 위한 제19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지난 10일부터 매일 철야 집회를 열어 탄핵 찬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보수단체 등도 이날 집회를 열었다. 광주 보수정당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안디옥 교회에서 '탄핵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기도회'를 진행했다.

기도회에는 전한길 강사, 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전한길 강사는 지난달 13일에 이어 2번째로 광주지역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앞서 해당 기도회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내란수괴 옹호 안디옥 교회 규탄집회'를 예고했으나 취소를 결정, 우려했던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편, 24일부터 헌법재판소의 법원에

서 향후 정국을 가를 사법부 판단이 줄줄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심 선고(26일)가 이뤄진다.

이후 이번 주 중·후반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예보 06:31 달맞이 03:14  
예보 18:47 달맞이 12:49



|     |    |       |
|-----|----|-------|
| 광주  | ☀️ | 10~21 |
| 목포  | ☀️ | 10~18 |
| 여수  | ☁️ | 10~16 |
| 순천  | ☀️ | 9~21  |
| 구례  | ☀️ | 2~22  |
| 광주  | ☀️ | 9~19  |
| 임도  | ☀️ | 10~20 |
| 흑산도 | ☀️ | 9~16  |
| 고흥  | ☀️ | 9~19  |
| 진도  | ☀️ | 9~17  |

|    |       |               |
|----|-------|---------------|
| 목포 | 밀물(고) | 09:10 / 21:17 |
|    | 썰물(저) | 01:17 / 16:12 |
| 여수 | 밀물(고) | 05:37 / 17:25 |
|    | 썰물(저) | 12:23 / 23:17 |

### 10년간 7억 빼돌린 아파트 경리 체포

도주 중 3000만원 인출 사용

수사에 착수한 광산경찰이 확인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통장에는 장기수선충당금 7억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도주 직전 광주에서 관리비 통장에 남아있던 현금 약 3000만원을 인출 후 잠적했다.

B씨의 행방이 쉽사리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중요·강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형사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또 해외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도주 16일 만인 지난 21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B씨를 검거했다.

임영진 기자 ljh4415@gwangnam.co.kr

### 아파트 인근 골프연습장 주민 행정소송 '각하'

광주고법 "원상복구 불가능...손해배상 방식 해결을"

광주의 한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인근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린 광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광주 A골프연습장 주변 아파트 주민 2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등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들은 광산구 수원지구 내 A골프연습장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로,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소음·조명, 조망권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골프연습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이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업체 측이 20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 뒤 기부채납하고 남은 저수지 부지 등을 활용해 세웠다.

그러나 2008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 준 광산구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서'가 아닌 '도시계획시설결정 동의서'를 내게 했고, 그 서류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후 광산구청 공무원들은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아파트 입대위는 골프연습장이 설립 될 당시에도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진정

###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실형

미넨피 ○...음주 측정과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 실형이 선고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현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을 기각.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그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한 경찰관들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30분 뒤에 하라'며 물건을 던져 얼굴에 부상을 입혀.

또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경찰차에서 도로 순경의 정강이를 다치게 했다고.

임영진 기자 looks@

### 흥기로 직장동료 살해범 '징역 15년'

자신을 '공공 횡령범으로 모함한다'고 오인해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현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단지 승강기 앞에서 직장동료 B씨(50)를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을 창 형태의 무기로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직후에는 흥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

### 편의점 女점주 폭행·강도...징역 6년 선고

여성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고 10만원을 빼앗은 40대 강도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0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10만

## 바로연

###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유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